

2015학년도 10월 고3 전국연합학력평가 정답 및 해설

• 국어 영역 •

국어 A형 정답

1	⑤	2	③	3	③	4	④	5	②
6	③	7	③	8	⑤	9	④	10	②
11	①	12	⑤	13	⑤	14	⑤	15	①
16	①	17	④	18	②	19	②	20	④
21	⑤	22	①	23	④	24	⑤	25	⑤
26	③	27	①	28	④	29	③	30	⑤
31	②	32	③	33	①	34	④	35	②
36	③	37	②	38	④	39	③	40	②
41	③	42	①	43	①	44	④	45	②

해설

1. [출제의도] 발표 전 준비 과정을 파악한다.

발표에서는 배다리의 모양이 시대에 따라 변해 온 과정을 단계적으로 설명하고 있지 않다.

[오답풀이] ① 발표 앞부분에서 질문을 통해 함께 체험 학습을 다녀 온 경험을 떠올리도록 하고 있다.

2. [출제의도] 발표를 듣고 내용을 추론한다.

발표자는 정조 때 관청의 배를 주로 이용하고 큰 배로 몸체를 만들어 배의 수를 줄일 수 있었다고 했다. 민간의 협조로 민간의 배를 더 많이 동원할 수 있었다고 추론할 수 있는 근거가 발표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3. [출제의도] 발표에 대한 청중의 반응을 분석한다.

‘학생 3’은 배다리 모형이 인상 깊어서 발표를 흥미롭게 들었다고 하였으나, 발표 내용에 새로운 가치를 부여하지는 않았다.

[오답풀이] ⑤ ‘학생 5’는 이전에 정조가 배다리를 건너 묘소를 참배한 것이 열두 번이나 된다는 자신의 배경 지식과 관련지어 발표를 들었다.

4. [출제의도] 대화 참여자의 발화 특징을 이해한다.

㉔은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을 떠올리고 그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고 있는 발화이다. 따라서 자신의 학습 경험을 환기한 것은 맞지만, 상대방의 발언 내용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 것은 아니다.

5. [출제의도] 기사 작성을 위해 나눈 의견의 적절성을 판단한다.

인터뷰한 내용 중 ‘고대 문명의 일반적 특징’과 관련된 내용은 없으므로, 인터뷰한 내용이 전체적으로 잘 반영될 수 있도록 기사 내용을 ‘고대 문명의 특징’과 ‘마야의 역사’ 두 부분으로 나누어 구성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6. [출제의도] 작문의 특성을 이해하고 글을 쓴다.

학생은 물 발자국과 관련한 정보를 바탕으로 독자를 설득하는 목적으로 글을 썼다. 이 글은 편지글처럼 친교적 관계 형성에 초점을 두고 쓴 글은 아니다.

7. [출제의도] 글을 계획하고 점검·조정한다.

(나)에는 ‘농산물, 축산물, 공산품’이라는 적용 대상을 밝혔고, 측정 방법에 사용된 예가 하나뿐이다.

8. [출제의도] 맥락에 맞게 글을 바르게 고친다.

㉔의 앞에는 물 발자국과 관련한 정책의 효과가, ㉕의 뒤에는 우리나라에서도 물 발자국과 관련한 정책을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타나 있다. 따라서 인과 관계를 나타내는 접속 부사를 써야 한다.

9. [출제의도] 개요의 글쓰기의 전략을 파악한다.

글쓴이는 인물의 행위에 ‘무모한 도전’이라는 부정적 의미 대신 ‘무한 도전’이라는 긍정적 의미를 새로 부여하고 있다. 그리고 글쓴이 자신도 앞으로 이러한 도전을 멈추지 말아야겠다는 다짐을 통해 자신의 태도와 연결하고 있다.

10. [출제의도] 작문 계획의 반영 여부를 판단한다.

행사는 ‘독서 퀴즈’, ‘저자와의 대화’, ‘자유 독서’ 등의 순서대로 진행되었다고 하였으나, 글은 ‘저자와의 대화’, ‘자유 독서’, ‘독서 퀴즈’ 등의 순서로 전개되었다. 따라서 행사의 일정에 따라 내용을 전개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11. [출제의도] 국어의 음운 규칙을 이해한다.

㉑의 ‘깁’은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따라 [깁]이 되었다가 비음화에 따라 [깁]이 된다. ㉒의 ‘흡만’은 자음군 단순화에 따라 [흡만]이 되었다가 비음화에 따라 [흡만]이 된다.

12. [출제의도] 조사의 특성을 이해한다.

<보기>의 ‘빵만’에서 조사 ‘만’은 격 조사 ‘으로’ 앞에 붙어 있다.

[오답풀이] ④ ‘어서요’에서 조사 ‘요’는 부사 ‘어서’ 뒤에 붙어 있다.

13. [출제의도] 국어의 문장 구조를 이해한다.

ㄴ의 안긴문장은 ‘지훈이가 성실하고 눈이 크다는’인데, 이 문장에는 목적어가 없다.

14. [출제의도] 국어사전의 자료를 탐구한다.

<보기>에 나타난 ‘배’, ‘배’, ‘배’는 서로 의미적 연관성이 없다. 즉 동음이의 관계에 있는 말이므로 사전에도 별개의 표제어로 실려 있다.

15. [출제의도] 문장의 중의성을 이해한다.

㉔은 부정 표현의 범위가 특정되지 않아서 문장이 중의성을 가지는 경우이다. ㉔에서 ‘않았다’를 ‘못했다’로 바꾸어도 중의성을 해소할 수 없다.

[오답풀이] ③ ‘선생님의’를 ‘선생님을 그린’으로 교체하면 ‘선생님이 그려진 그림’으로 의미를 확정할 수 있다.

[16~19] (과학) 김경의 외, ‘생활환경과 기상’

이 글은 수직의 곡률이 수직의 성장에 필요한 수증기압에 영향을 끼친다는 점과 용질이 녹은 수직의 경우 수직 성장에 필요한 수증기압은 순수한 수직의 경우보다 낮아진다는 점을 설명하고 있다. 이를 통해 수직의 형성과 성장에 미치는 요인을 설명하고 있다.

16. [출제의도] 글의 서술 방식을 파악한다.

이 글은 구름 수직의 형성과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요인을 설명하고 있다. 곡률 효과와 흡습성 에어로졸에 의한 용질 효과를 서술하면서 구름 수직의 형성과 성장 원리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있다.

17. [출제의도] 글의 세부 정보를 파악한다.

첫째 단락에서 대기가 냉각되면 포화 수증기압이 낮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으므로, 포화 수증기압이 높아진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18. [출제의도] 글의 내용을 추론한다.

셋째 단락에서 흡습성 에어로졸로 인해 상대 습도 100% 이하에서도 응결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과포화가 아닌 상태에서도 응결이 일어난다고 할 수 있다.

19. [출제의도] 글의 내용을 바탕으로 구체적 사례에 적용한다.

넷째 단락에서 용질 효과는 수직의 성장에 필요한 수증기압의 감소 효과를 나타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왜냐하면 용질이 녹은 수직의 경우 성장에 필요한 수증기압은 순수한 수직의 경우보다 낮기 때문이다.

[20~22] (기술) 정용택, ‘적외선 열화상 카메라’

적외선 열화상 카메라의 구조와 마이크로볼로미터의 기능을 중심으로 한 작동 원리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글이다.

20. [출제의도] 글의 세부 내용을 이해한다.

마지막 문단에서 피사체와 적외선 열화상 카메라의 거리는 적외선 복사 에너지의 강도와 서로 반비례 관계에 있음을 알 수 있다.

21. [출제의도] 글의 내용을 추론한다.

음의 저항 온도 계수가 높은 물질을 감지 재료로 사용하면 미세한 온도 증가에도 저항이 크게 감소해 ROIC기판에 흐르는 전류량이 증가된다. 이를 통해 피사체의 표면 온도 차이를 쉽게 구별할 수 있다.

22. [출제의도] 글의 내용을 바탕으로 구체적 사례에 적용한다.

마이크로볼로미터 하나는 모니터 화면의 한 픽셀에 해당한다. <보기>의 A보다 B의 픽셀이 더 많으므로 마이크로볼로미터의 개수는 A가 B보다 적다.

[23~26] (사회) 정재황, ‘신헌법입문’

헌법의 개념을 제시하고, 헌법을 어디까지 개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두 가지 입장인 개정 무한계설과 개정 한계설을 소개하고 있다.

23. [출제의도] 글의 세부 정보를 파악한다.

세 번째 단락 마지막을 통해 실질적인 규범력의 차이를 인정하지 않는 입장은 개정 무한계설임을 알 수 있다.

[오답풀이] ③ 네 번째 단락을 통해 개정 한계설은 헌법 제정 권력과 헌법 개정 권력을 구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4. [출제의도] 사례를 통해 제시된 개념을 이해한다.

A 국가는 통치 형태가 군주제에서 민주주의로 바뀌었으며, 군주제에서의 헌법은 국민들이 선출한 의회를 통해 새로운 헌법으로 바뀌었으므로 헌법의 파기가 발생했다고 볼 수 있다.

25. [출제의도] 외적 준거를 제시된 개념에 적용한다.

형식 논리를 중요시한다는 측면에서 개정 무한계설과 법률 실증주의는 맥락을 같이 한다. 따라서 자연법을 인정하지 않는 법률 실증주의자들은 개정 한계설에 동의하지 않는다.

26. [출제의도] 단어의 문맥적 의미를 파악한다.

‘피력하다’는 생각하는 것을 털어놓고 말한다는 의미이다.

[27~30] (인문) 이정모 외, ‘인지 심리학’

이 글은 개념과 범주의 의미에 대한 설명을 기반으로 하여 개념이 범주화의 기능을 하고 있으며, 범주화는 인간의 사고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

27. [출제의도] 글의 개괄적 정보를 파악한다.

범주화의 다양한 종류를 설명하지 않고 있다.

[오답풀이] ② 범주화가 위계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은 3문단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③ 내포와 외연의 의미가 2문단에 제시되어 있다.

28. [출제의도] 글의 핵심 개념을 구체적인 사례에 적용한다.

‘청소년들’은 그림 속 대상을 범주화하여 외웠다. 이에 대해 제시된 그림 속 각각의 대상이 지닌 독특한 특성에 주목하여 외웠다고 설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① A는 거미가 곤충에 속해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이는 거미와 곤충이 유사한 모습을 하고 있다는 것에 주목하였기 때문이다. ③ ‘유아들’은 각각의 그림을 따로따로 외우기 때문에 그림이 많아지면 외우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29. [출제의도] 글의 내용을 추론적으로 이해한다.

어류의 범주에 포함되는 모든 존재가 가지고 있는 속성은 ‘아가미로 호흡한다’이고, 잉어는 어류의 범주에 포함되기 때문에 ㉔의 결론이 도출될 수밖에 없다.

[오답풀이] ① ㉔에서 ‘아가미로 호흡한다’는 것은 어류의 내포에 해당한다. ⑤에서 ‘잉어’는 ‘어류’의 상위 범주가 아니라 하위 범주이다.

30. [출제의도] 어휘의 사전적 의미를 이해한다.

‘축적’은 ‘지식, 경험, 자금 따위를 모아서 쌓음.’이라는 뜻이다. ‘보호하고 간수해서 남김.’은 ‘보존’의 의미에 해당한다.

[31 ~ 33] (현대시 복합) (가) 김현승, ‘시의 맛’ / (나) 이성복, ‘나는 왜 문학을 하는가’

(가) 김현승, ‘시의 맛’

화자인 시인이 일상의 구체적인 행복을 포기하고 시를 쓰는 행위를 통해 문학적 가치를 얻을 수 있음을 형상화하고 있는 작품이다.

(나) 이성복, ‘나는 왜 문학을 하는가’

작가가 글을 쓰는 과정과 의미를 동물의 행동에 비유한 글이다. 일상의 언어와 다른, 문학의 언어를 표현하기 위한 작가의 고뇌를 엿볼 수 있다.

31. [출제의도] 작품의 표현상 특징을 파악한다.

‘시를 쓴다’, ‘시를 쓸 때’의 반복이 나타나고 이를 통해 화자는 시를 쓰는 행위에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32. [출제의도] 두 작품을 비교하여 감상한다.

<보기>는 (가), (나)를 작가의 문학적 행위에 초점을 맞추어 설명하고 있다. (가)에 시인이 시를 쓰기 위해 방황했던 과거 삶이 드러난다고 보기 어렵고, 회한의 정서도 나타나지 않는다.

33. [출제의도] 시구의 의미를 적용하여 감상한다.

(나)에서 해달이 조개의 살을 꺼내 먹는 행위에 빗대어, ‘글 쓰는 사람’도 ‘딱딱한 일상의 외피를’ 벗겨내야 ‘부드러운 속살’을 얻는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므로 시인이 얻게 된 예술적 가치를 의미하는 ㉑과 연결하여 이해할 수 있다.

[34 ~ 37] (고전소설) 임제, ‘원생몽유록’

세조의 왕위 찬탈을 소재로 인간사의 부조리와 천도에 대해 회의를 드러낸 작품이다. 형식적으로 볼 때 입몽과 각몽이 뚜렷이 나타나 있고, 꿈속의 사건이 순차적으로 드러나 있어 몽유록계 소설의 대표작으로 알려져 있다.

34. [출제의도] 작품의 서술상 특징을 파악한다.

이 작품은 자허가 꿈속에서 단종과 그 신하들을 만나 그들의 이야기를 듣는 내용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 그 과정에서 인물 간의 대화와 삽입된 노래를 통해 인물들이 마음속에 품고 있는 생각이나 느낌을 드러내고 있다.

35. [출제의도] 인물들의 행동과 정서를 이해한다.

이 작품에서 자허가 신하들 사이의 오해를 해소하기 위해 애쓰는 모습은 나타나지 않는다.

[오답풀이] ① 임금은 노래를 통해 새 임금(세조)에게 왕위를 잃은 슬픔을 드러내고 있다.

36. [출제의도] 외적 준거를 통해 작품을 감상한다.

기이한 사내가 ‘썩은 선비들’이라고 질책하는 대상은 임금 주변에 있던 ‘다섯 사람’이다. 기이한 사내는 함

께 대사를 꾸짖지만 그것을 달성하지 못한 것에 대한 울분으로 이들을 ‘썩은 선비들’이라고 말한 것이다.

37. [출제의도] 작품의 세부 내용을 이해한다.

복건 쓴 이가 선위라는 제도를 만든 옛 임금들, 선위를 핑계로 임금의 자리를 빼앗은 자, 신하로서 임금에게 반역한 자를 함께 비판하자 임금은 옛 임금들에게는 죄가 없다고 말하고 있다.

[38 ~ 40] (고전시가) 이광명, ‘복찬가’

이 작품의 작가는 역모 죄로 처형된 이진유의 조카라는 이유로 유배를 가게 된다. 유배의 역울함과 홀로 남겨진 노모에 대한 그리움과 염려를 노래하고 있는 조선 후기 유배 가사이다.

38. [출제의도] 작품의 표현상 특징을 파악한다.

지문에서 의성어나 의태어를 사용한 부분을 찾을 수 없다.

[오답풀이] ⑤ ‘잠든 빛기 한숨이오 한숨 끝에 눈물 일세’ 등에서 연쇄법을 확인할 수 있다.

39. [출제의도] 외적 준거를 통해 작품을 이해한다.

‘여의 잃은 용’은 화자의 처지를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임금에 대한 안타까움을 드러낸 것은 아니다.

[오답풀이] ④ 어머니의 일상을 걱정하고 있는 화자의 심정이 드러난다.

40. [출제의도] 다른 작품과 비교하여 감상한다.

이 글의 화자는 어머니가 계신 남쪽으로 흘러가는 ㉠을 부러워하고 있고, <보기>의 화자는 ㉡를 ‘허랑’한 존재, ‘날빛을 따라가며 덮’는 존재라고 노래하며 비판적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41 ~ 45] (현대소설) 황순원, ‘두꺼비’

‘두꺼비’는 해방 직후 고국에 정착을 기대하며 서울로 온 전제민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이야기를 통해 당대 현실을 드러내고 있는 작품이다.

41. [출제의도] 작품의 서술상 특징을 파악한다.

이 글에서는 현세에 초점을 맞추어 현세와 짐주름 영감, 현세와 두갑이 사이에서 벌어지는 상황에 대한 현세의 심리를 드러내고 있다.

42. [출제의도] 인물의 태도와 심리를 파악한다.

짐주름 영감은 [A]에서 현세가 빨리 이사를 할 수 있도록 셋방 사람들을 내보내는 데 애를 썼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두갑이는 [B]에서 자신이 단돈 오백 원을 내놓은 짐주름인에게 고함을 질러 돈을 더 받아왔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43. [출제의도] 외적 준거를 통해 작품을 이해한다.

현세가 흘린 ‘눈물’에서 자신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상황 전반에 대한 슬픔 등을 읽어낼 수 있다. 그러나 현세가 짐주름 영감과 함께 공동체 의식을 바로잡기 위한 노력을 했다고 볼 수는 없다.

44. [출제의도] 작가의 의도와 관련지어 감상한다.

두꺼비 설화에서 두꺼비는 은혜를 갚는 동물이지만 이 글에서 두갑이는 현세에게 약속한 방을 얻어주지 않는 부정적 인물이다. 이러한 두갑이를 통해 설화 속 두꺼비와 같은 인물이 더 이상 존재하기 어려운 비정한 현실을 드러내려고 했음을 알 수 있다.

45. [출제의도] 상황에 어울리는 한자성어를 파악한다.

‘동병상련’은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끼리 서로 동정하고 도움’이라는 의미이다. 지문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두갑이가 자신을 이용했음을 깨닫는 현세의 모습에서 분노를 읽어낼 수는 있어도 ‘동병상련’의 정서를 느끼기는 어렵다.